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

2023. 12. 28.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경과

◇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수립 추진

* 문화예술 관련 국정과제: 56번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번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① 장관 주재 문화예술계 의견수렴 및 현장 방문

○ 문화예술기관·단체 대상 간담회 5회

-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업무보고('23.10.16.), 국립예술단체 간담회(11.6.),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간담회(1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간담회(11.24.), 확대기관장 회의(12.7.)

○ 장르별, 지역별 간담회 10회

-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 간담회('23.10.20.), 무용 분야 간담회(11.13.), 부산 청년예술인 간담회(11.15.), 미술 분야 간담회(11.21.), 진주 전통예술인 간담회(11.22.), 문학 분야 간담회(11.27.), 국악 분야 간담회(12.1.), 연극 분야 간담회(12.6.), 클래식 분야 간담회(12.18.), 통영 청년예술인 간담회(12.22.)

○ 문화예술계 현장 방문 13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23.10.20.), 국립민속국악원(10.20.), 대한민국 건축 문화제(10.25.), 국립극장(11.3., 12.29.), 국립부산국악원(11.15.), 예술의 전당(11.17., 11.26.),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11.22.), 아트코리아랩(11.25.), 국립국악원(12.3.), 예술인권리보장센터(12.19.), 문화도시 및 로컬100 지역현장(12.21.~22., 통영국제음악당·밀양아트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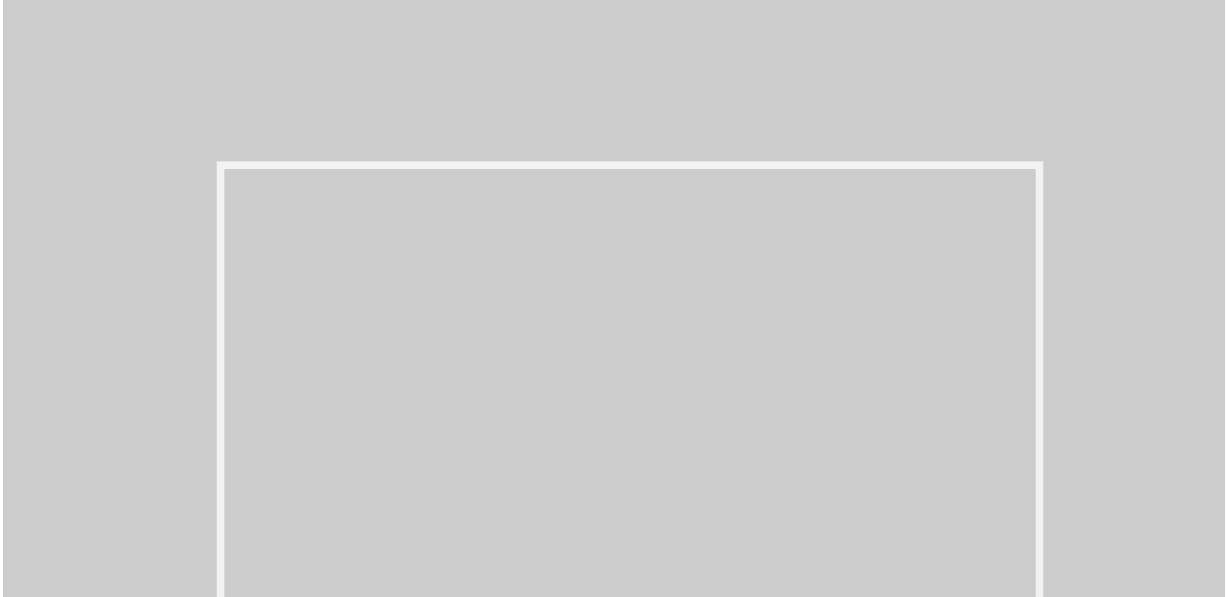
※ 차관, 실국장급 현장 의견수렴 46회('23.10~12월)

② 기존 문화예술 정책 및 지원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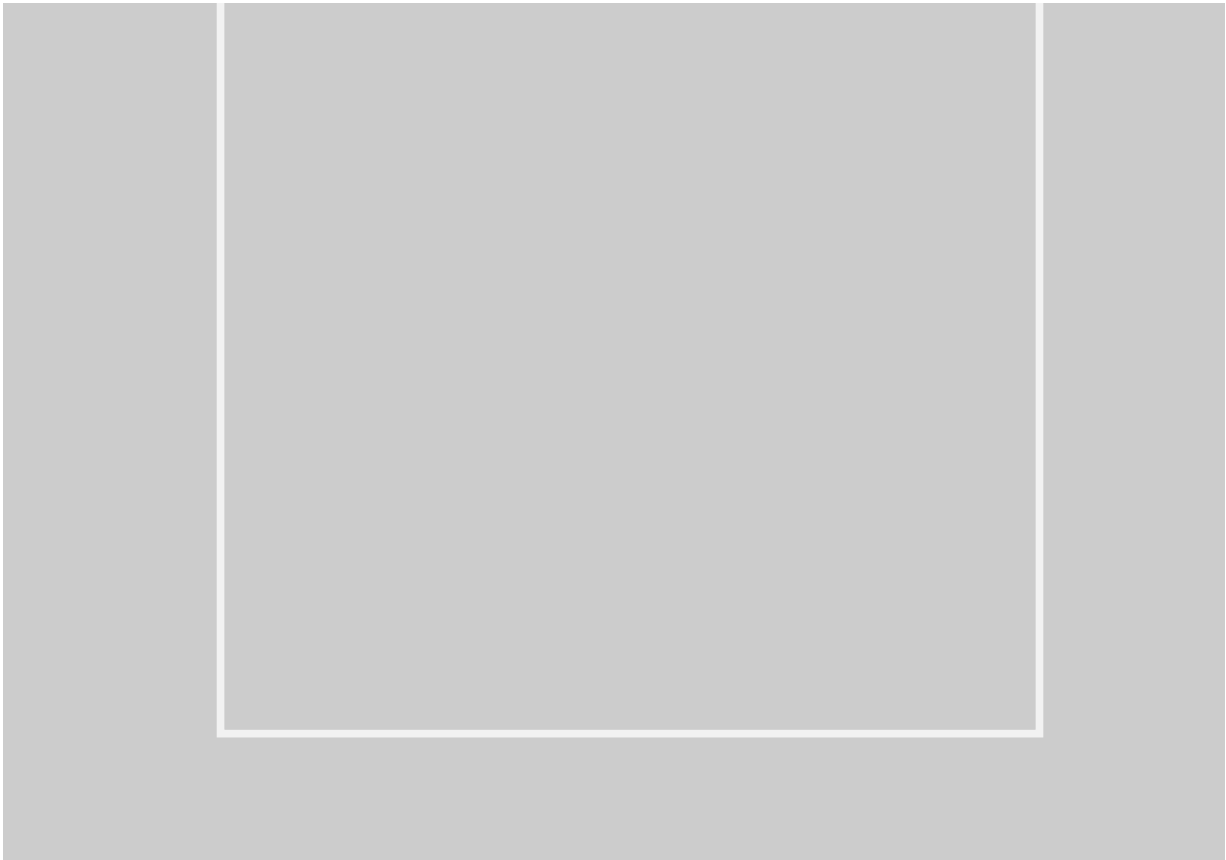
○ 새 정부에서 발표된 문화예술 정책 6건 총괄 분석

-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2.9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1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23.3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3.4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3.6월), 제2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3.9월)

○ 문화예술 지원체계 진단 토론회 1회('23.12.18.)



요 약
- 핵심과제 -



I .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요약표

비전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목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1] 예술인 지원의 혁신

- ① 순수예술 지원 확대**
- 기존사업 지원단위, 단가 확대
- 예술 자금지원 정책 도입

- ②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의 개선**
- 간접 지원 / 다년·사후 지원 /
인큐베이팅 지원

- ③ 예술영재·청년예술인 양성**
- 예술영재 교육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확대
- 민간 예술단체의 청년 고용지원

- ④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지원**
- 파리올림픽 계기 집중 홍보
- 문화예술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 K-아트 장르별 전략적 해외진출

[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⑤ 잠재관객 발굴**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예술 교육과정 확대

- ⑥ 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 문화예술의 전국 유통지원 강화
- 국립단체·기관의 지역 순회 확대

- ⑦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 육성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추진
-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 로컬100 확산으로 지역방문 촉진

- ⑧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 서울 / 경기·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 ⑨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 소액다건 사업 통폐합하여 대표 브랜드 사업화
-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를 연계하여 대표 축제로 재탄생

- ⑩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 문화예술 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 유통·향유·국제교류 기능 일원화
- 국립문화예술시설 관리기관 신설

Ⅱ.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요약

[전략1] 예술인 지원의 혁신

- 1 예술계의 획기적 성장을 위해 순수예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사업 지원단위, 지원단가 확대)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지원 사업 확대, 국고 지원사업의 창작 단가기준 상향 조정 추진
 - (예술 자금지원 정책 도입) 자금난을 겪는 예술단체·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융자,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정책펀드 도입
- 2 예술성 높은 대표작가·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 창작 지원방식의 개선) 공간,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지원 강화, 다년·사후 지원(레퍼토리화)으로 안정적 창작 지원, 기관 연계를 통한 단계별 인큐베이팅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
- 3 미래 예술 인재 발굴을 위해 청년예술인을 양성합니다.
 -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위 확대) 재능있는 청년예술인 공공무대 기회 확장, 차세대 신진예술인 발굴('23년 95명 → '24년 295명)
 - (민간단체 청년예술인 고용지원) 민간예술 단체·기관에서 청년예술인을 예술 전문인력으로 고용하도록 일자리 지원('24년 1,172명)
- 4 한국예술의 해외진출로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 (파리올림픽 계기 K-아트, K-컬처 집중 홍보) 파리올림픽 전후로 현지에서 다양한 전시·공연 개최('24년 14개 프로그램, 178억원)
* 국립예술단체 현지 공연(6~10월),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7~8월) 등

[전략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5 청년 등 문화예술의 예비 수요를 발굴하겠습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대상 '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여 문화소비 촉진, 예비수요 발굴('24년 시범운영, 170억원)

6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소규모 공연·전시부터 초대형 전막 공연까지 지역에서도 다양한 공연·전시 콘텐츠 향유 지원('24년 신규, 400억원)
- (국립단체·기관 지역 순회 확대) 국립단체의 공연, 국립박물관·미술관의 국보급 소장품 등 서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공연·전시 지역 순회 확대

7 문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으로 지역 예술계의 자생력 강화('24년 시범운영, 180억원, 10개 단체)
- (문화도시, 로컬100)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도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육성(13개), '로컬100'으로 지역방문 촉진

8 총 1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총 1조 5천억원 투입하여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문화예술 향유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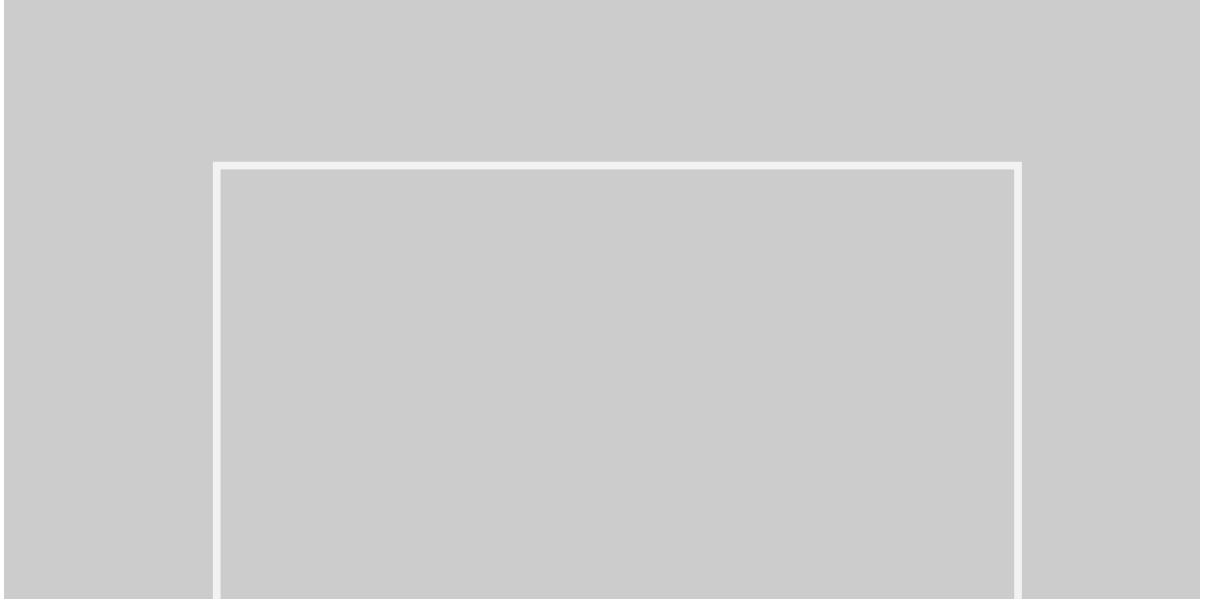
[전략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9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표사업, 대표축제를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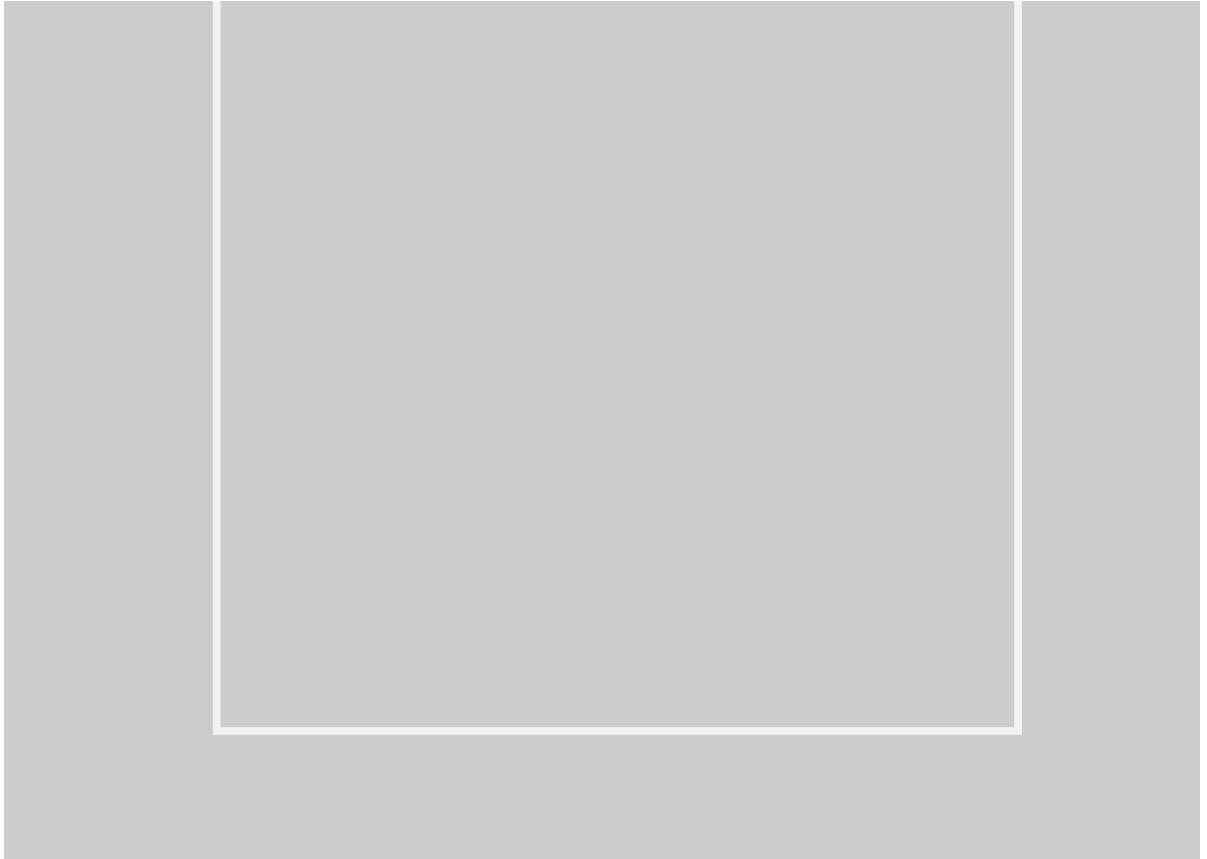
- (문화예술 사업 전면 재구조화) 기존의 소액·다건 유사 중복 사업을 '유통'과 '향유', '국제교류'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대표 브랜드 사업화
- (한국 대표 브랜드 축제 지원) '교향악축제', '웰컴대학로' 등 주요축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행사를 연계하여 한국 대표 브랜드 축제화

10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만듭니다.

- (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문예위-지역재단 역할 조정*, 책임심의관제 도입
* (문예위) 전국단위·중장기 창작지원, (지역문화재단) 지역단위·소규모·단기 창작지원
- (유통·향유·국제교류 기능 일원화) 업무 중복이 있는 유통·향유·국제교류 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 지원('24.上)
- (시설 관리기관 설립)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신설 국립문화예술시설을 통합 운영할 전문운영법인 설립('24.2월)



TH **FD**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현황 진단	2
III . 추진방향 및 전략	5
IV . 중점 추진과제	6
1. 예술인 지원의 혁신	6
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12
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19
V . 기대효과 (문화예술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1
VI . 과제별 추진계획	22

I . 추진배경

□ 예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원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술은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미적 감성, 창의성, 감수성, 공감 및 소통능력의 원천*으로 주목받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 '환대' 등 AI가 대체불가능한 능력을 갖도록 국가·기업이 전폭 지원해야 함('20.10월, 세계경제포럼(WEF))

- 예술은 과학기술,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제공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선보임

* 비디오아트, 미디어아트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로 기술도 상호 발전

□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 성장, 지역소멸 대응

- 문화예술은 타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관광·식품·미용 등 연관산업의 성장 및 수출 견인**

* 부가가치유발계수: 문화예술산업 0.827, 전산업 0.687, 제조업 0.568('16.4월, 산업연구원)

** BTS, 오징어게임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화장품·음악·방송·음식 등의 수출 급증을 이끌며 생산유발액 기준 37조원에 달한다고 분석('23.7월, 한국경제연구원)

- 최근 국가 성장동력 약화, 지방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결방안*으로 문화예술의 역할 재조명

*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문화예술이 지역을 살린다는 뜻.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은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바탕으로 연간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성장

□ 문화의 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품격에 기여

- 문화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행복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가의 품격을 높임

*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백범 김구)

* "한 민족의 문화는 사람들의 심장과 영혼에 머무른다"(마하트마 간디)

◇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은 더욱 행복하고 국가의 품격은 높이는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수립

II. 현황 진단

1. 창작 환경

□ 미래 예술을 위한 지원 부족 ⇨ 예술성·역량 제고 필요

- (지원 방식의 한계) 단년도 일회성, 소액다건식 직접 지원*으로 예술계의 정부의존성 심화**, 장기적 역량 강화에 한계

* '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 350억원, 1,157건, 1건당 평균 30.2백만원 지원

**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자립도 감소: ('13) 30.4% → ('16) 22.8% → ('21) 17.1%

- (예술영재 교육 부족) 과학영재 교육*에 비해 국가 단위의 예술영재 교육 규모가 적어** 지리적, 경제적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

* 27개 대학 무료(과기부), 20개 이상 대학(교육청) 등 모든 시도에서 과학영재 교육 운영

** 4개 한예종 영재원 무료(문체부), 15개 대학(교육청) 등 7개 시도에서 예술영재 교육 운영

- (청년예술인 기회 부족) 예술계에 진입하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가 부족하며, 전업예술인으로서의 현장 안착이 어려움

* 예술대학 취업률 62.5% 특히 음악 전공 53.2%(전체 63.3%), 유지취업률 67.6%(전체 80.3%)

□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 기초예술 등으로의 한류 확장

- (한류 확산) 한류에 힘입어 외국인의 70.7%는 한국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문화경쟁력도 지속 상승 중**

* 한국에 대한 인식: 긍정 70.7%, 보통 22.9%, 부정 6.4%(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 한국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 랭킹: ('17) 15위 → ('22) 7위(美 와튼스쿨)

- (한국예술 위상 제고) 최근 국제콩쿠르 석권 등을 바탕으로 한국 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며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

* 김태한 성악가 퀘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23), 임윤찬 피아니스트 밴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22), 한강 문학작가 프랑스 메디치상 외국문학상 수상('23) 등

- 또한, 한류 흐름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초예술의 확산 필수적

*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해 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한국 뿐", "한류가 계속되려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케이팝뿐 아니라 영화, 문학, 미술 등 여러 예술을 풍부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佛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

2. 향유 환경

□ 낮은 문화예술 관람 경험 ⇨ 폭넓은 문화향유 필요

- (관람 의향에 비해 낮은 관람률) 문화예술 관람 의향(66.9%)에 비해 실제 문화예술관람률(58.6%)은 낮은 편*
 - 특히, 관람률은 '19년 81.8%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1년 33.6%로 하락 후 '23년 58.6%로 회복세**에 있음

* 장르별 문화예술관람 의향 및 관람률(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구분	전체	문학	미술	클래식	국악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의향	66.9%	3.2%	9.1%	3.7%	5.1%	11.3%	15.6%	1.7%	56.3%	25.5%
관람률	58.6%	1.9%	7.3%	1.9%	2.4%	5.4%	5.5%	0.5%	52.4%	11.0%

** 문화예술관람률: ('19) 81.8% → ('20) 60.5% → ('21) 33.6% → ('23) 58.6%

- (기초예술 관람 감소 추세) 영화, 대중음악에 비해 기초예술 관람 경험은 소폭 증가. 또한, 코로나19 피해도 더 크게 입음

* 장르별 문화예술관람률(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2019-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구분	전체	문학	미술	클래식	국악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12년	69.6%	6.1%	10.2%	4.4%	6.5%	11.8%	11.5%	2.0%	64.4%	13.5%
'19년	81.8%	6.7%	13.5%	6.1%	10.3%	14.9%	13.5%	2.4%	77.0%	23.3%
'23년	58.6%	1.9%	7.3%	1.9%	2.4%	5.4%	5.5%	0.5%	52.4%	11.0%

□ 지역소멸위기, 지역 간 문화 격차 ⇨ 문화균형발전 필요

-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기초지자체의 40%인 89개가 법정 인구감소지역이며, 이 중 85개가 비수도권에 위치
 - *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 집중('21년 기준), 인구 50.5%가 수도권 거주('22년 기준)
- (문화격차) 문화예술시설의 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향유 격차*는 정주 여건 및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어 인구 유출 가속화

* 문화예술 시설·활동의 지역 격차(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문예연감)

구분	전국 문화기반시설 분포도		전국 문화예술활동 분포도	
	총합	1개 시·도당	전시	공연
수도권	1,152개(36.6%)	384.0개	7,604회(56.9%)	8,952회(48.3%)
비수도권	1,993개(63.4%)	142.4개	5,760회(43.1%)	9,608회(51.7%)

** 여가생활만족도: (대도시) 65.7% > (중소도시) 58.6% > (읍면지역) 54.2%

3. 지원체계

□ 소액다건식의 사업·축제 ⇨ 전면 재구조화 필요

- (소액다건식 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소액으로 다수 기관에서 집행하여, 일부 단체의 중복 수혜, 정보 비대칭 등에 대한 민원 多
- * (예) 지역 유통 지원 사업 -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생태계 구축(예경, 111억),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한문연, 14억), 방방곡곡 문화공감(한문연, 158억) 등
- (군소 축제 다수) 문체부 소관 문화예술 분야 축제·행사는 총 55개 이나, 축제 간 연계가 부족하며 한국을 대표할 축제 부재

- * 문화예술 분야 축제·행사(총 55개)
 - (공연)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6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6월), K-뮤지컬 국제마켓(6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10월), 서울아트마켓(PAMS)(10월) 등
 - (문학) 서울국제도서전(6월), 문학주간(9월), 서울국제작가축제(9월) 등
 - (미술) 공예주간(5월), 미술주간(9월), 공공디자인페스티벌(10월) 등

□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 미흡 ⇨ 지원기관 재정비 필요

- (기관 간 기능중복) 문체부 산하기관 총 51개 中 문화예술 분야는 26개로 가장 많으며, 소규모 유사 기관 간 업무 중복 조정 필요
- * 문체부 전체 공공기관 31개(문화예술 11개), 공직유관단체 20개(문화예술 15개)
 -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중 예산 200억원 이상 기관 10개에 불과

기관명	정원	예산	설립일	근거법률
세종학당재단	74	618	'13.1.	국어기본법 19조의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59	3,979*	'73.10.	문예진흥법 제20조
예술의전당	378	203	'87.1.	문예진흥법 제37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5	1,059**	'15.1.	예술인복지법 제8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72	968	'06.1.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68	459	'11.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53	810	'07.4.	문화예술교육법 제10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40	241	'03.6.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7	296	'15.3.	-
(재)지역문화진흥원	33	210	'16.5.	-

(* 통합문화이용권 2,400억원 포함 / ** 창작준비금 660억원 포함)

- (대표기관 부재) 콘텐츠(콘진원 514명), 체육(체육공단 1,456명), 관광(관광공사 736명)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는 행정력을 갖춘 대표 공공기관 부재

Ⅲ. 추진방향 및 전략

비전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목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전략1] 예술인 지원의 혁신

- ① 순수예술 지원 확대
- ②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의 개선
- ③ 예술영재·청년예술인 양성
- ④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지원

[전략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⑤ 잠재관객 발굴
- ⑥ 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 ⑦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 ⑧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전략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 ⑨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 ⑩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IV.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예술인 지원의 혁신

- ◇ 예술계의 획기적 성장을 위한 순수예술 지원 확대
- ◇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 창작 지원방식의 개선
- ◇ 예술영재 발굴,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통한 미래 예술 동력 확보
- ◇ 한국예술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의 외연 확장

1 순수예술 지원 확대

□ 기존사업 지원단위, 지원단가의 확대

-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개인이 아닌 전국 단위 지원에 집중
 - 소액다건식 지원은 줄이고 축제 등 프로젝트 지원 확대 추진
(문예기금 1건당 평균 지원금액 '23년 평균 3천만원 → '27년 평균 1억원 목표)
- (단가기준 상향 조정) 예술창작에 대한 대가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고 사업에서 지원하는 창작 단가기준 상향 조정 추진

장르별 창작대가 기준 적용 계획

- (문학) 문예지 발간지원 원고료 단가 상승 적용('27년까지 평균 사례비 1.5배 목표)
 - ※ 비평/평론 원고지 1매당 평균 사례비 9,414원, 동화 7,522원에 불과
- (공연예술) 직무별 사례비 단가 상승 적용('27년까지 평균 사례비 1.5배 목표)
 - ※ 연극·뮤지컬 배우 1시간당 평균 사례비 8,093원, 무용수 8,141원에 불과
- (시각예술)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22년 문체부 고시) 적용

□ 예술 자금지원 정책 도입

- 자금난을 겪는 예술단체·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융자*,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정책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 검토
 - * 직접융자 또는 이차보전 / **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신규펀드 추가 또는 예술계정 신설

※ 비교: 타 분야 금융지원 정책 사례('24년 기준)

- (콘텐츠) 이차보전 융자 2,400억, 모태펀드 문화계정 6,700억, 완성보증 2,400억
- (스포츠) 직접융자 1,579억, 이차보전 융자 1,560억,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500억
- (관광) 직접융자 5,365억, 이차보전 1,000억, 신용융자 1,000억, 모태펀드 관광계정 497억

2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의 개선

□ [간접지원] 공간,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강화

- (공간 지원) 창작공간 지원 확대, 국립공연장 대관료 인하
 -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 확대(문예위, '23년 27억원 → '24년 100억원)
 - 예술의전당('24년 인촌아트홀 10% 인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 국립공연장의 민간 예술인·단체 대상 대관료 인하 추진

문예위 창작공간 활성화 계획

- (문학 집필공간 지원 확대) '23년 4억원 → '24년 10억원
 - (기존) 숙식 제공형(8개, 275명, 4억원) + (추가) 오피스형(20개, 280명, 6억원)
- (공연장 활성화 지원 확대) '23년 11억원 → '24년 60억원
 - (기존) 단순지원 → (개선) 대관료 할인율 최소 50%, 10회 이상 대관 조건으로 지원
-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 확대) '23년 12억원 → '24년 30억원

※ 지원사례: 대학로 소극장 '학전' **현장의견**

- (지원배경) '24.3월 경영난 등으로 인해 극단 학전 해체 및 극장 폐관 예정 → 문화예술계 내외 소극장 '학전'이 지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요구
 - * '학전' 개요: '91년 개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공연장이자, 들국화, 유재하, 강산에, 故 김광석 등 가수들의 공연장으로 대학로의 대표적인 소극장
- (지원내용) 문예위(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소극장 임대차계약 및 민간위탁운영 검토

- (홍보·마케팅 지원) 예술 분야 맞춤형 홍보·마케팅, 법률·노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간 상시 운영('24.4월 아트코리아랩 비즈센터)

아트코리아랩 비즈센터 운영 계획

- (위치) 광화문 아트코리아랩 7층
- (기간/대상) '24.4월부터 월~금 / 예술인 및 예술기업
- (지원내용) 예술인·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영, 법률, 투자, 지식재산권, 홍보·마케팅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상담 지원

□ [다년·사후지원] 안정적 창작을 통한 성공작 창출(레퍼토리화)

- (다년 지원)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지원을 위해 다년간 창작 지원 사업 확대(문예기금 다년 지원사업 비율 '24년 15% → '27년 25% 목표)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검토

- (사후 지원) 성공작 창출을 위해 첫 해 지원 결과가 우수한 신작은 차년도 후속 지원 체계화('24년 신규, 문예위 창작산실 후속 지원 27억원)

※ **美 국립예술기금(NEA) 펠로우십 사례**

- (지원내용) 발표된 작품의 우수 창작자를 선별하여 추가 지원
- (지원규모) (1년차) 12억원, 360명 지원 → (2년차) 12억원, 360여명(일부 집중육성 지원) → (3년차) 12억원, 40명 지원(집중육성-펠로우십 제도 전환)

※ **국내 타 분야 펠로우십 사례: 세종과학펠로우십**

- (개요)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내용) 일반트랙 - 5년(3+2년), 연 150명, 직접 연구비 1억원 이내 지원
국외연수트랙 - 2년(1+1년), 연 50명, 연 7천만원 정액 지원

□ **[인큐베이팅] 단계별 집중 육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

-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로 산재한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집중 육성(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

* 장르별 기관 간 우수사례 추천 또는 가점 지원, 장르별 성과공유회 공동 개최 등

각 장르의 단계별 지원 예시

공연	미술	문학
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화랑 전속작가제 (예술경영지원센터)	① 창작산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② 중장기 창작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우수작가 후속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② 도서나눔 보급사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
③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③ 해외 아트페어 참가 및 전시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③ 번역 및 해외출판 지원,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등 (한국문학번역원, 출진원)
↓		
④ K-뮤지컬 로드쇼 및 국제 마켓(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예경)		

※ **창작뮤지컬 '마리퀴리'의 인큐베이팅 및 해외진출 지원 성공사례**

-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등 5관왕 / '22.7월 폴란드, '23.3~4월 일본 진출

- ① (기획단계) '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뮤지컬 라이브(창작뮤지컬 공모전)
- ② (창작단계) '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초연
- ③ (레퍼토리화단계) '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 ④ (해외진출단계) '22년 예술경영지원센터, K-뮤지컬 로드쇼(영국)

3 예술영재 · 청년예술인 양성

□ 예술영재 교육 확대

- 미래 예술영재 발굴·양성, 예술영재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술 영재교육 지원 강화

한예종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운영현황 및 계획

- (개요) 예술영재 대상 한예종 교수 및 강사진 강의 무료 제공
- (주요성과) 피아니스트 손열음('02 수료), 발레리나 박세은('07), 피아니스트 임윤찬('09) 등
- (운영현황) 4개원 - '08년 서울, '21년 세종·통영, '23년 광주 → 향후 추가 검토

□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능있는 청년 예술인에게 공공 무대 기회를 확장하고, 차세대 신진예술인 발굴 - 국립오페라단 사례를 타 단체에도 도입('23년 95명 → '24년 295명)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스튜디오' 운영사례

- (운영현황) 연간 30명 - 매월 활동지원금 150만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연주회 개최
* 오페라코칭, 외국어(독어, 불어) 디션, 스테이지 무브먼트, 대본 분석 등
- (운영성과) '23년 수료생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우승 등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운영계획

- (국립심포니) 국내·외 전공자 대상 'KNSO 아카데미' 운영(55명→65명)
- (국립오페라단) 신진 성악가 교육 과정인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운영 확대(30명→60명)
- (국립극단) 청년연극인 창작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신설(40명, 신규)
-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무작 중심 시즌 무용수 신규 선발(20명, 신규)
- (국립합창단) 청년예술인 대상 합창 전문교육 및 공연 기회 부여(20명, 신규)
-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비단원 신규 선발(20명, 신규)
- (국립극장) 청년 국악 오케스트라 '이음' 운영, 신진 안무가지휘자 발굴(10명→30명)
- (국립국악원)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 신규 선발, 국악원 공연 출연기회 제공(40명, 신규)

□ 민간 예술단체의 청년예술인 고용지원

- 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고용지원('24년 1,172명)

예술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현장예술인력 지원) 민간 단체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채용 지원(문예위, '24년 600명)
- (무용수 일자리 지원) 무용단·무용수 간 일자리 매칭 및 출연료 지원(문예위, '24년 297명)
- (공공 디자인 인턴십) 청년 인턴십 제공,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공진원, '24년 155명)
- (공예 청년 인턴십) 공예기술, 공방운영 노하우 습득 등 지원(공진원, '24년 120명)

4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지원

□ 파리올림픽 계기 집중 홍보 (14개 행사, 178억원)

< 파리올림픽 계기 K-Culture Festival 추진배경 >

- 파리올림픽은 ▲ 100년 만의 파리 재개최, ▲ 최초의 야외 개막식, ▲ 문화적 명소를 활용한 경기 개최 화제 요소가 많아 집객력이 높고, K-팝 등에 대한 현지의 호감·관심 높아 파리를 거점 삼아 유럽 전역에 한국 문화예술을 적극 확산할 수 있는 기회

* 올림픽 206개국 10,500명, 패럴림픽 184개국 4,400명 선수 참가 예정

○ (K-아트) 한국예술의 정수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공연 개최

파리올림픽 계기 한국예술 홍보 계획

- (국립예술단체) 올림픽 기간 전후로 프랑스 각지에서 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공연(6~10월)
- (국악·무용) 브레이크 댄스와 국악 협연 등 '코리아시즌 문화예술행사' 개최(5~10월), 낭트 '한국의 봄' 축제에서 국악 홍보(5~6월), 현지 축제 연계 현대무용 공연(8월)
- (미술·공예)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현지 개최(7~8월), 파리 디자인 위크 기간 한국 공예 쇼케이스 및 팝업스토어 운영(9월)

○ (K-컬처) 전통, 대중음악 등 한국문화 쏠 장르 체험 및 홍보

파리올림픽 계기 한국문화 홍보 계획

- (한국문화전반) 파리 코리아센터에서 씨름 등 '한국의 놀이'를 알릴 이벤트 개최(5~10월), 앵발리드에 '코리아하우스'를 설치하여 K-컬처 체험 제공(7~8월)
- (전통문화)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로 한복, 한지, 한식 등 전통문화 체험(7~8월)
- (한글) 파리 코리아센터에서 한글연구 성과를 예술로 재해석한 전시(7~8월)
- (콘텐츠) 'K-박람회' 연계 전시체험 운영 및 연관산업(소비재, 식품 등) 진출 지원(9월)
- (관광) 'K-관광 로드쇼'에서 한국 방문의 해 홍보, 방한 프로모션 추진(6월)
- (패션) 세계 4대 패션위크인 '파리패션위크'에 K-패션 쇼룸 운영(9~10월)
- (방송) 프랑스 국제방송영상마켓 '미티비(MIPTV)'에 한국공동관 참가(4월), 글로벌 방송 콘텐츠 마켓 '미컴(MIPCOM)'에서 K-방송 마케팅(10월)
- (영화) '칸 국제영화제 및 필름마켓'에서 K-영화 쇼케이스(5월)

※ 2012 런던 문화올림픽

- 올림픽 공공미술, 셰익스피어 축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등
- 개막식 3분간 영국 전역의 모든 종이 울리는 마틴 크리드의 실험예술 화제
- 런던 2012 페스티벌(12.6.21.~9.9. / 3개월): 거리공연·전시·영화제 등
- 올림픽 계기 영국의 문화적 성과를 전세계에 홍보



□ 문화예술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 (문체부 총괄 기능 강화) 국제문화교류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 정책 역량 제고('24.上)
- (재외문화원·코리아센터 거점화) 재외 한국문화원('24년 33개), 코리아센터*('24년 5개) 기능 확충 등으로 한국 문화예술 해외진출의 거점화
 - * 코리아센터: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및 세종학당 등 분야별 해외거점 연계 협력 강화 목적으로 구축(現 중국 북경, 상해,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 미국 LA)
- (세종학당 확대)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며, K-컬처를 알리는 세종학당 확대('24년 85개국 248개소 → '27년 350개소 목표)

□ K-아트 장르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 (공연) 해외진출 플랫폼 강화 및 K-뮤지컬 해외진출 집중 지원
 - 해외진출 플랫폼: '웰컴대학로'와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를 연계하여 공연예술 해외진출 강화
 - 뮤지컬 집중 지원: 국제뮤지컬마켓, 해외 주요도시 로드쇼, 프로듀서 역량 강화 등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확대
- (미술) 해외진출의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지원('24년 신규, 47억원)

인바운드 프로모션 지원	아웃바운드 지원
·키아프.프리즈 기간 해외 미술계 인사를 초청하여 작가 작업실, 미술관 투어 제공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공항 등)에 전시 등으로 차세대 작가 집중 홍보	·국내 화랑·경매의 해외 판매·전시 관련, 프리뷰(pre-view) 전시 지원 ·해외 아트페어 개최기간 연계 등 한국 아트 페어 해외 개최 지원

- (문학) 해외출간 단계별 맞춤형 지원,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1단계) 수요 창출	(2단계) 수출 협상	(3단계) 해외 출간
·전략지역*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 맞춤형 번역 지원	·샘플번역 및 시놉시스 등 신속한 저작권 협의를 위한 자료 제작지원('24년 신규)	·저작권계약 완료한 해외 출판사 대상 번역 및 출판 지원금 지원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 (중점국) 한국문학 진출 중수 상위 8개 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점국) 진출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파급효과 높은 9개 국가 -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전략 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 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예비 수요 발굴
- ◇ 국립기관의 순회 확대, 유통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개선
- ◇ 문화를 통한 지역의 대표 브랜드 창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구축

1 잠재관객 발굴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24년 시범 지원)

- 문화소비 의향은 크나 높은 비용의 제약이 있는 성년기 진입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 지원('24년 170억원)
 - 바우처를 통한 순수예술 이용 촉진으로 직접적인 문화소비 확대,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 * 국비 10만원 + 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 지원

※ 해외 청년 문화패스 지원사례 * 단일 연령 지원

- (이탈리아) 18세 €500('16년 도입), (프랑스) 18세 €300('21년), (스페인) 18세 €400('22년), (독일) 18세 €200('23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추진계획

- (지원대상) 19세 청년 16만명
- (지원내용) 순수예술(공연, 전시)에 사용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 예술 교육과정 확대 현장의견

- 초·중등 교육과정 내 예술 시수 비중 또는 과목 확대* 검토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예술 특화 등 시범 적용
- * (초3~중3) 예술교과군에 음악·미술 / (고등) 예술교과군 선택과목에 음악·미술·연극
- ** (대상) 비수도권, (적용 특례) 지역 맞춤형 운영, (재정지원) 특구당 30~100억원

※ 해외 예술 교육과정 사례

- (미국, 뉴질랜드) 예술교과에 무용·음악·연극·시각예술 편성
- (호주) 1~3단계-공연예술·시각예술, 4~5단계-미술·무용·연극·미디어·음악

2 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 문화예술의 전국 유통 지원 강화 ('24년 신규)

- 지역민 수요 및 공연장 역량을 고려한 규모별 문화예술 유통 지원으로 지역의 다양한 공연·전시 콘텐츠 향유 지원('24년 400억원)
 - 서울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도 국립예술단체의 초대형 전막 공연을 볼 수 있는 향유 환경 조성, 권역별 글로벌 스탠다드 공연장 육성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 세부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약지역 문화향유 증진 · (지원내용) 1~6천만원 소규모 공연·전시 콘텐츠 제공
중형규모 공연예술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역공연예술계 창제작 및 유통역량 강화 · (내용) 2~5억원 중형 규모 공연 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지원
국립예술단체 전막 공연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 세계 수준으로 역량 강화 · (내용) 10억원 초대형 규모 공연 국립단체-거점공연장 협업 개최

국립예술단체 초대형 전막 공연 지역 유통 계획

-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및 '라트라비아타' 등 대형 전막 지역 공연(국립심포니합창단 등 참여)
- (국립발레단) 허난설헌 생가 소재 강릉 '허난설헌-수월경화' 제작(강릉아트센터 협업)
- (서울예술단) 대극장 레퍼토리 '다윈영의 악의기원'(안), 권역별 대표 공연장 공동제작
-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중심으로 국립극장-전주세계소리축제 공동제작

□ 국립예술단체 · 기관의 지역 순회 확대 현장의견

- (국립예술단체) 국립단체의 찾아가는 지역 공연 비중 확대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24년 136억원, 456회 공연)
- (국립중앙박물관) 금관, 달항아리 등 국보급 문화재의 중소도시 대상 소규모 전시('24년 6종, 12개 중소도시) 등 지역 순회 확대
 - * 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 순회 지속('24년 제주, 춘천)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 소장품을 국립미술관 협업 전시 등에 무상 대여하는 '나눔미술은행' 운영, 우수 전시 지역 순회 검토
 - * 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 순회 지속('24년 제주, 전북)

3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 육성 ('24년 시범 지원)

- 지역예술계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예술단체 육성('24년 180억원(지방비 50%))
 - 지역에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케스트라단 등 다양한 장르의 단체 설립 유도, 시즌·객원 단원 운영으로 청년 기회 확대

지역의 대표예술단체 육성 계획

- (대상)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 지자체 * 기존 단체의 지역 유치 또는 신설
- (지원내용)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180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90억원), 10개 내외 단체

※ 지역 예술단체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비수도권 지자체 소속 공립 예술단체 185개 - 합창단 76개, 오케스트라 28개, 전통악단 42개, 오페라 1개, 무용 20개, 극단 13개, 예술단 3개
- (문제점) 인건비 소요가 큰 오케스트라(최소 70명 정단원 필요), 공연사업비 높은 발레단·오페라단 설립 저조(비수도권 中 광주시립발레단,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유일함)

※ 해외 지역 대표예술단체 사례: 英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Royal Shakespeare Company)

- 영국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본(이하 '스트랫퍼드')을 기반으로 한 극단('61년 설립)
- '18~'19 시즌 기준 관객 약 170만 명, 총 2,255회 공연
- 스트랫퍼드(인구 2만 3천명) 한 해 관광객 500여만 명 중 약 57만 명의 경우 RSC 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순수 관람객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추진 ('24년 신규)

- 혁신도시, 농어촌지역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지원('24년 61.5억원)
 - 연중 지속되는 문화향유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
 - 지역별 테마가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표브랜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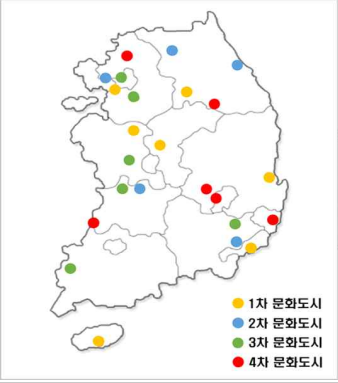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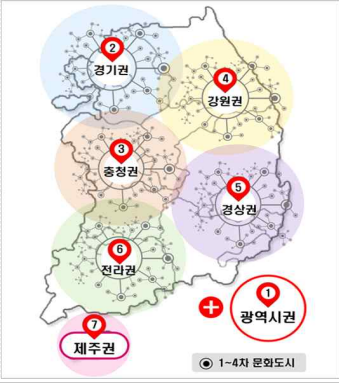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추진계획

- (사업대상) 혁신도시, 농어촌지역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
- (사업유형)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테마를 담은 문화 향유 지원
 - ① 지역대표 브랜드(공연, 축제) 활성화: 문화예술축제, 문화지구 특화 콘텐츠 활성화 등
 - ② 문화관광 프로젝트: 지역문화 체험·탐방,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 ③ 지역맞춤 문화예술 프로그램: 혁신도시 직장공연, 농어촌 전통시장 공연·전시 등

□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24년 개편)

-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도시를 13개 선정하고 4년간('24~'27년) 각 최대 200억원을 지원(지방비 50%)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육성
 - 개별 지자체 도시계획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문화도시 사업을 권역별로 광역형 선도모델을 육성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개편

기존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비교

구분	1차~4차 문화도시 개별 지자체 도시계획 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문화균형발전 선도, 권역별 지원
지원 방식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주도 공동체 활성화 ▶ 지역 고유 문화가치 증진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 도시재생 접목 사회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향유 2천만 명 ② 문화공간 2만곳 조성 ③ 지역주민 여가활동만족도 개선(17%→20%) ④ 지역 경제 파급 효과 1조원 ⑤ 지역 민간 투자액 1조원 ⑥ 지역 일자리 창출 3천명

□ 로컬100 확산으로 지역방문 촉진

- 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인 '로컬 100'을 방문하는 대국민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전개('23~'24년)
 - 그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도록 함

로컬100 사업 추진현황

- (목적)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림
- (내용)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으로 선정
 - 명소: 안동 하회마을, 대전 성심당, 양양 서피비치, 신안 퍼플섬, 울산 지관서가 등
 - 콘텐츠·명인: 남원시립국악단 상설 창극공연, 진주남강유등축제, 평창 '이효석' 등

4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 ◆ 총사업비 1조 4,773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30년)
 - 국립 문화예술 공간의 새로운 조성으로 국민 문화예술 향유 폭 확대
 - 창·제작·유통·향유의 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거점 구축

□ [서울] 도심 내 문화예술 지형을 변화시킬 대표공간 조성

- 서울 도심 내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4억 / 국립극단 부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극장 재개관('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1억 / 노후화한 공연장 확대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5억 / 폐화력발전소를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한국문학관('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6억 / 한국문학 자료보존 및 전시 공간화

- 국립시설 조성을 계기로 인근 지역을 문화예술 중심지화
 -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계기 '마포·홍대 일대의 복합예술 벨트' 조성
 - 국립공연예술센터 계기 '서울역·명동·남산 일대의 공연예술 벨트' 조성

마포·홍대 일대의 복합예술 벨트	서울역·명동·남산 일대의 공연예술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홍대 앞 거리를 중심으로 창작 및 전시·공연 활성화 등을 통해 예술·관광 거점으로 육성 ① 전시(신진작가, 미디어아트 전시 등), 공연(인디 밴드 공연, 길거리 공연·축제 등), 청년 아트페어 개최 등으로 콘텐츠 다양화 ②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제공 ③ 관광특구 활성화(해외 관광업계 팸투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국립정동극장+명동예술극장+국립극장을 잇는 공연 예술 창·제작 및 공연관광 벨트 조성 ① 내·외국인 대상 공연관광 프로그램 개발 ② 4개 국립공연장 릴레이 할인 등 ③ '28년 국립공연예술센터 개관 및 국립정동극장 재개관 시기 공연예술 벨트 전역에서 공연예술축제 개최

□ [경기·강원권] 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 경기 북부·남부 권역 이전 미군기지 활용 공연장 조성
- 경기·강원권의 서울 인접권 이점을 활용하여 개방형 수장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 국립수장시설 특화 클러스터(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2억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17) · 392억 /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21) · 366억 / 국립예술단체 무대예술지원센터(24) ·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29)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억과유산 자료센터(29) ·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2단계 증축(33) ▪ 양주 아트센터(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1억 / 미군 공여구역을 공연장으로 조성 ▪ 평택 평화예술의전당(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55억 / 이전 미군기지 활용 공연장 조성 ▪ 평창 국가문화보존관(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87억 /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고, 데이터센터
--	--

□ [경상권] 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장르별 특화 공연장 조성

- 옛 경북도청 건물을 경상권의 문화예술 허브로 재공간화
- 대구 뮤지컬, 부산 클래식 등 장르별 특화 공연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옛 경북도청 문화예술 허브(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근대미술관 기본계획 수립(24) ·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기본계획 수립(24) ▪ 밀양 연극교육체험관(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억 / 연극 교육 및 체험 공간 조성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9억 / 국립중앙박물관 지역관 조성 ▪ 부산 국제아트센터(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7억 / 대형 클래식 전용 공연장 조성
--	--

□ [충청권] 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지역 특화 문화예술 시설 건립

- 옛 충남도청 건물을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으로 재공간화
 - * 국현: 관별 전문적 관리를 위해 1차(서울)-2차(지역) 소속기관으로 조직화 추진
- 아산 이스포츠, 대전 융복합기술 등 지역 특화 문화예술 시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충주박물관(26) · 485억 / 국립중앙박물관 지역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26) · 91억 / 디지털문화관 추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국립디자인박물관(27) · 803억 / 국립박물관단지 內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30) · 1,981억 /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 부지 內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26) · 453억 / 대전 옛 충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

□ [전라·제주권] 전통문화 등 기존 인프라 연계 시설 건립

- 전주 서예비엔날레 등 기존 인프라 연계 특화시설 건립 지원
-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여 역사문화 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서예 비엔날레관(26) · 324억 / 서예 특화 전시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26) · 341억 / 전통문화 실감콘텐츠 공연·전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옛 전남도청 복원(25) · 483억 / 옛 전남도청을 역사문화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25) · 230억 / 복합문화관 추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25) · 287억 / 도자문화관 추가 건립

전략 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 ◇ 소규모 사업·축제를 전면 재구조화하여 대표사업, 대표축제로 브랜드
- ◇ 문화예술 지원기관 재정비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1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면 재구조화

- 기존의 소액·다건 유사 중복 사업을 '유통'과 '향유',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집행 효율화 및 대표 브랜드 사업화

문화예술 지원사업 재구조화 방안

<기존>	<재구조화안>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생태계 구축 (예경, '23년 156억)	→ 유통 ['24년 完]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400억)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한문연, '23년 19억)	
방방곡곡 문화공감 (한문연, '23년 177억)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 (각 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문원, '24년 166억)	→ 향유 ['25년] 문화가 있는 날
신나는 예술여행 (문예위, '24년 185억)	
국가 간 문화교류 (코피스, '24년 209억)	→ 국제교류 ['25년] (가칭) K-아트 해외진출
시각예술의 국제화 (예경, '24년 18억)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예경, '24년 47억)	
공연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참가 (예경, '24년 7억)	

□ 한국 대표 브랜드 축제 지원

- 주요축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행사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장르별 브랜드 축제로 성장 지원

장르별 예술축제 연계 방안

장르	주요축제 - 연계 지원 축제·공연(안)
연극·공연	웰컴대학로(10월) -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10월), 서울아트마켓(PAMS)(10월)
클래식	교향악축제(4월) -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 등 연계(4~5월)
뮤지컬	K-뮤지컬국제마켓(6월)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6월)
무용	전국무용제(9월) - 현대무용페스티벌(9월)
미술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9월) - 미술주간(9월), 광주비엔날레(9월)

2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 문화예술 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 (중앙-지방조정) (지역재단)신규 예술가·단체 발굴·육성 및 문예위에 추천
→ (문예위)추천된 예술가·단체 대상 제한 경쟁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25년)

문예위-지역재단 기능조정 기본 방안

구분	문예위	지역재단
기본특성	전국단위/창작환경/지역균형 지원	지역단위/창작기회 제공 중심 지원
지원방식	대규모 간접지원, 다년도 지속 지원	소액,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 지원

- (책임심의관제) 심의위원회를 '내부전담직원 1명* +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여 내부전담 직원의 심의 전문성·책임성 확보('24년 시범운영)
* (대상) 10년 이상 근무자, (역할) 연중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

□ 유통·향유·국제교류 기능 일원화

- 문화예술 분야에서 업무 중복이 있는 예술시장 활성화·유통, 지역 문화 진흥·향유,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 지원('24.上)
-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기관 육성 추진

문화예술 지원기능 통합방안

예술시장 활성화·유통 - 시각예술 시장 육성, 문화예술 유통지원 등
지역문화진흥·향유 - 문화가 있는 날, 여가친화 지원 등
국제문화교류 - 국가 간, 민간·지역문화 교류 등



유통·향유·
국제교류
통합 지원

※ 콘텐츠 진흥 업무 통합 사례

- '09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콘텐츠 진흥 업무, 게임 진흥 업무, 방송영상산업 진흥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 지원구조화

□ 국립문화예술시설 관리기관 설립

-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신설되는 국립문화예술 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확보
-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24.2월)하여 시설 종합 관리
* 현황: 소마미술관·조각공원(체육공단),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극장 등(문예위)
신설: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25년 개관),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28년 개관)

V. 기대효과 (문화예술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술인

- 예술 창작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이 조성됩니다.
 - 연극·뮤지컬 배우 1시간당 평균 사례비 8,093원 → '27년까지 1.5배 목표
- 예술단체들은 공연장을 더욱 낮은 가격에 대관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대관료 10% 인하, 문예위 지원받는 공연장 대관료 50% 이상 인하
- 예술인, 예술단체·기업은 아트코리아 비즈센터에서 법률·노무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상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은 공모에 1번 선정되면 3년간 이어서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예기금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 확대: '24년 15% → '27년 25%
- 예술인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문화예술 지원기관은 우수한 작품이 한국예술의 대표 작품(레파토리화)이 되도록 끝까지 지원합니다.
- 청년예술인들은 국립예술단체의 단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23년 95명 → '24년 295명
- 민간 예술단체에서 청년예술인을 예술 전문인력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 전문인력 지원: '24년 1,172명

국민

-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24년 170억원, 19세 청년 16만명, 1인당 최대 15만원
- 서울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도 국립예술단체의 초대형 전막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공연·전시부터 국립예술단체 초대형 전막공연까지 다양한 콘텐츠 향유
- 이견희컬렉션 등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을 지역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소속박물관 순회,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순회 전시 확대
-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생깁니다.
 -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 육성: '24년 180억원, 10개 단체
- 전국 13개 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광역권의 문화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대구의 옛 경북도청 건물, 대전의 옛 충남도청 건물, 광주 옛 전남도청 건물은 각각 문화예술허브,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 4월 교향악축제, 6월 K-뮤지컬국제마켓, 9월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10월 웰컴 대학로를 중심으로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VI.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일정
[전략1] 예술인 지원의 혁신			
① 순수예술 지원 확대			
	기존사업 지원단위, 단가 확대	문체부	'24년~
	예술 자금지원 정책 도입	문체부	'25년~
② 예술 창작 지원방식의 개선			
	간접지원	문체부	'24년~
	사후·다년지원	문체부	'24년~
	인큐베이팅 지원	문체부	'24년~
③ 예술영재·청년예술인 양성			
	예술영재 교육 확대	문체부	'24년~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 확대	문체부	'24년~
	민간 예술단체의 청년예술인 고용지원	문체부	'24년~
④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지원			
	파리올림픽 계기 집중 홍보	문체부	'24년
	문화예술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문체부	'24년~
	K-아트 장르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문체부	'24년~
[전략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⑤ 잠재관객 발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문체부	'24년~
	예술 교육과정 확대	문체부·교육부	'24년~
⑥ 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강화	문체부	'24년~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순회 확대	문체부	'24년~
⑦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 육성	문체부·지자체	'24년~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추진	문체부	'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문체부·지자체	'24년~
	로컬100으로 지역의 고유 매력 발굴·홍보	문체부·지자체	'24년
⑧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문체부·지자체 등	'24년~
[전략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⑨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면 재구조화	문체부	'24년~
	한국 대표 브랜드 축제 지원	문체부	'24년~
⑩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문화예술 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문체부	'24년~
	유통·향유·국제교류 기능 일원화	문체부	'24년~
	국립문화예술시설 관리기관 설립	문체부	'24년~